

배롱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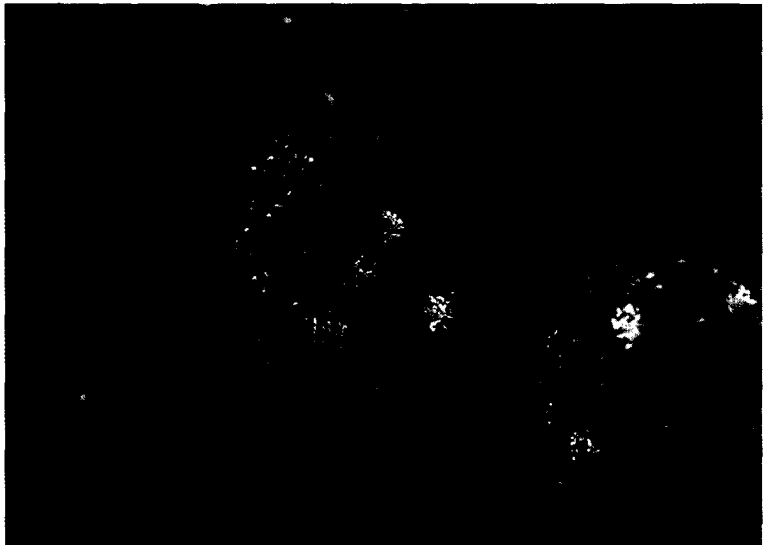
- ▶ 과명 : 부처꽃과
- ▶ 학명 : Lagerstroemia indica
- ▶ 영명 : Crape Myrtle
- ▶ 한명 : 百日紅, 紫薇花
- ▶ 일명 : さるすべ리



최 명 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배롱나무는 매마른 봄을 이기고 무더운 여름 장대비를 거뜰히 이겨 내고 꽃이 없는 한더위에 능소화와 함께 꽃이 핀다. 능소화는 장마가 시작되면 꽃피기를 멈추나 배롱나무는 초여름부터 이른 가을까지 100일정도 까지 꽃이 계속해서 핀다 하여 백일홍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 개의 꽃이 100일동안 피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뼘 이상 되는 원추상의 꽃차례를 이루어 여러 개의 꽃이 차례로 피는 것이다. 중국이 원산



▲ 배롱나무꽃



▲ 배롱나무



▲ 배롱나무

으로 추위에 약하여 중부지방에서는 원줄기가 얼어 죽는 일이 많다. 그래서인지 중부지방에서는 키가 작은 관목의 형태를 보이거나 따뜻한 남쪽에 가면 키가 7~8m까지 자라는 소교목이다.

지방에 따라서 간질나무, 간지럼나무라고도 부르고 제주도에서는 '저급타는 낭'이라고 부르는데 이 역시 간지럼 타는 나무라는 뜻의 사투리이

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사루스 베리'라고 부르는데 원숭이가 미끄러지는 나무라는 뜻이다. 나무껍질이 하도 미끄러워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도 미끄러진다는 그런 뜻이다

1. 생태적 특성

중국 남부가 원산지인 낙엽 활엽소교목으로 수고 7~8m에 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중부 이남의 사원 및 촌락 부근에 관상용으로 식재하고 지리적으로는 인도, 호주에 분포한다. 양지에서 잘 자라며 토심이 깊은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양호하고 비옥적윤한 곳에서 생육이 왕성하다. 내한성이 약하여 중부지방에서는 겨울을 나기 위하여 보온시설을 해주어야 하며 해변가에서는 잘 견디나 대기오염에는 약한편으로 수시로 수관을 물로 세척해 주어야 한다.

2. 형태적 특성

원줄기는 홍갈색으로 평활하고 벗겨진 자리는 희다. 잎은 마주나고 두꺼우며 타원상 계란형으로 길이는 2.5~7.0cm에 이른다. 잎의 표면은 윤채가 있고 털이 없으며 뒷면은 엽맥을 따라 털이 있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며 잎자루는 거의 없다. 원추화서는 가지끝에 나고 길이 10~20cm, 지름 3~4cm이다. 꽃은 양성으로 7~9월에 적색, 또는 백색으로 아름답게



▲ 배롱나무

무한화서로 피며 꽃잎은 6개로서 둥글며 주름살이 많다. 열매는 삭과로서 넓은 타원형이고 길이 1.0~1.2cm로서 6개의 방으로 구분되지만 간혹 7~8개의 방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10월에 익는다. 유사종으로 흰꽃이 피는 것을 흰배롱나무 (for. alba Rehder)라 한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진 주홍색의 영롱한 꽃이 배롱나무 특유의 빛을 발해 멀리에서도 감상할 수 있는 꽃이 100일 이상 피어 공원이나 가정 정원에도 식재할 만하며 가로수로도 식재하면 꽃이 없는 한여름에 더

위를 식혀주는 청량제 역할을 할 것이다. 줄기는 모과나무나 노각나무처럼 얼룩이 저 아름다워 잎이나 꽃이 없는 겨울철 줄기도 감상할 만하다. 특히나 뿌리를 멀리 보내지 않아 산소주변에 식재해도 좋다.

4. 번식법

번식은 주로 파종과 삽목에 의한다. 10월에 익는 종자를 채취하여 정선한뒤 파종 1개월전에 노천매장 하였다가 이듬해 파종하는데 발아율이 매우 높다. 이른 봄에 파종하면 그해 여름철에 바로 꽃이 피는데 교잡이 심하게 일어나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이 피기 때문에 우수한 개체를 증식하기 위해서는 삽목 번식한다.

5. 그 밖의 용도

잎은 자미묘, 뿌리는 자미근이라 하는데 어린이들의 백일해와 기침에 특효가 있고 여인들의 대하증, 불임증에도 좋은 약재가 되며 혈액순환과 지혈에도 효과가 크다 한다. 목재는 조적도 치밀하고 견고하여 세공재로 쓰고 실내장식이나 기구를 만드는데도 이용된다. 